닻 올린 20대 국회…시험대 오른 '협치'

박대통령 첫 개원 연설…"국정 동반자로 국회 존중"
정세균 의장"분열 고리 끊고 국민통합 용광로 돼야"
자리 배치 그대로…여소야대·3당체제 속 난제 산적

제20대 국회가 13일 오전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경제 위기와 소득·노동 양극화 심화, 계층·세대 간 갈등 확산, 북한의 도발 위협 등이 고조되는 전방위적 위기 속에서 출발하는 20대 국회는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이 같은 난제를 풀어가야 할 책무를 지게 됐다. 특히 이번 국회는 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체제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첫발을 내딛는 만큼 새로운 '협치'의 정치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여야 의원 전원의 개원 선서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사, 박근혜 대통령의 개원 연설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중 첫 개원연설에서 국회를 더욱 존중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여야가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3당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 운영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오로지 국민 입장에서 나서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세균 의장은 개원사에서 "국회는 갈등을 통합하기보다 방조하거나 심지어 부추겨 왔다"면서 "20대 국회는 갈등과 차별, 분열,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출범 초부터 내년 대통령 선거 정국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여야 간 사생결단의 대립과 폭로전 속에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는 박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대통령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국민만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간다면 헌정사에 길이 남을 협치의 발자취를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대 총선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경제가 이 지경으로 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더 심각해진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중요한 원인인데도 이에 관한 한 마디 반성도 없었던 것은 실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원식 본회의장에서 여야는 정당별로 나눠 앉는 기존의 모습을 반복했다. 당 지도부 의원들이 본회의장 맨 뒷줄에 앉아 소속 의원들을 '감시'하는 자리 배치도 바뀌지 않았다.

박 대통령 개원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여당 의원들만 주로 박수를 치고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는 모습 역시 반복됐다. 더민주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입장·퇴장할 때에는 기립해 박수를 치기도 했지만 연설 도중에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반면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 입장·퇴장 때는 물론 연설 도중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이며 더민주와 대조를 이뤘다. /임동욱기자 tuim@

여야 쟁점 상임위 '저격수' 배치…대선 전초전 치열할 듯

법사위, 권성동·조응천·박지원…정무위·기재위 '경제통' 경쟁

여야가 13일 20대 상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대부분 마무리한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쟁점 상임위에 대표적 공격수를 집중 배치한 것이 눈에 띈다.

여야 모두 소속 의원 배치에 신경을 쓴 상임위는 본회의 전 마지막 입법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경제민주화를 다루는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방송 이슈를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따라서 이 상임위에서는 치열한 대선 전초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우선 야당에서 여당으로 위원장이 바뀐 법사위의 경우 새누리당은 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을 전반기 첫 1년 위원장으로 세우고, 역시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을 위원으로 배치했다. 권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자원외교 의혹' 국정조사위와 법사위 등에서 여당 간사로 활동했다. 김 의원 역시 19대 때 법사위에서 강성 이미지를 구축했다.

야당도 이에 맞서 주포들을 법사위에 배치했다. 더민주는 법사위에서 잔뼈가 굵은 3선의 이춘석 의원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재선의 박범계 의원 등 율사 출신을 전면 배치했다. 특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을 치른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이 포함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민의당은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대여 공세의 중심을 맡아왔던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용주 법률위원장이 포함됐다.

20대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정무위의 경우 새누리당에선 18·19대 국회에 걸쳐 정무위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김용태 의원이 또 포진될 것이 확실시된다. 더민주는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과 비례대표 중 최고의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운열 의원을 배치했다. 국민의당 역시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경제전문가로 떠오르는 채이배 의원이 들어갔다.

또 다른 주요 경제 상임위인 기재위에는 새누리당에서는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혜훈 의원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출신인 이종구 의원이 들어갔다. 더민주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재벌개혁 첨병을 자임하는 박영선 의원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당에서는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대여 정책공세 채비를 마쳤다.

이와 함께 대선을 앞두고 방송 공정성 등 민감이슈를 다룰 가능성이 커진 미방위에 새누리당은 당내 대표적 공격수인 조원진 의원을 배치했다. 더민주는 신경민·김성수·최명길 의원 등 MBC 출신들이 대거 배치됐다. 국민의당은 김경진·신용현 의원이 활동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文, 히말라야 출국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네팔로 출국하다 한 시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3주가량 현지에 머물면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더민주 사무총장제 부활

최고위원제→대표위원제로…'文 혁신안' 절충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의 하나인 '5본부장제'를 폐지하고 과거의 사무총장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대신 최고위원제를 대표위원제로 전환하는 혁신안은 수용, 최고위원 선출 방식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더민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3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본부장을 사무총장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전 대표 때의 혁신위원회는 사무총장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다면서 이를 총무본부장 등 5본부장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반면, 전준위는 최고위원제를 대표위원제로 전환하는 혁신안은 수용, 권역·부문별로 대표위원을 뽑아 지금의 최고위원을 대체하기로 했다. 다만, 혼동이 올 수 있는 만큼 대표위원들은 현재대로 '최고위원'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당 대표 선거와 분리해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했지만, 이번 전당대회부터는 권역별 최고위원 5명, 노인·청년·민생 등 부문별 최고위원 5명 등을 선출하게 된다고 송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안은 이후 비대위에 보고되고 나서 당무위와 다음 달 초순 열리는 중앙위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번 결정은 혁신위안(案)을 하나는 반영하고 또 하나는 폐기함으로써 혁신위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의견을 한데 수렴한 '절충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새누리, 8월 9일 당대표 선출

올림픽 기간 전당대회…최경환·이정현 출마 관심

새누리당은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올림픽 기간(8월5~21일)인 8월9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 대변인은 "8월9일로 결정한 이유는 빨리 새로운 지도체제로서 새 출발하자는 그런 의미로 서두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림픽 기간과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림픽이 5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올림픽으로 안 가는 시기라고 생각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뛰는 시기가 아니라 국민께 호소하면서 전대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애초 새누리당은 리우올림픽과 겹치지 않게 전대를 치를 예정이었다.

이처럼 전당대회가 5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을 노리는 새누리당 중진들의 발걸음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친박(친박근혜)계 구심점인 4선 최경환 의원이 전대에 출마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현재까지 친박계에서는 순천에서 3번째 등원에 성공한 이정현 의원과 원유철 전 원내대표, 홍문종 의원 등이 몸을 풀고 있는 상태다. 또 박근혜정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이주영 의원도 범박계 후보로 전대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에 맞서 비박(비박근혜)계에서는 5선의 정병국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 밖에 새누리당 내에서 유일한 여성 4선 의원인 나경원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리베이트' 자체 조사단 출범

국민의당은 13일 당 비례대표인 김수민 의원의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규명할 내부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돈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고 법조인 출신 박주선 최고위원과 김경진·김삼화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고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고 "추가인선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 4명으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오늘 바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조사 범위는 1차적으로는 선관위 고발 사건에 한정해서 조사하고 그 이후에 범위 확대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선관위가 고발한 핵심내용이 리베이트 금액이 당으로 들어왔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